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단풍잎 돼지풀



생태 교란 식물 퇴치  
 남구자연보호협의회, 자연사랑봉사회 회원 등 50여명이 최근 광주시 남구 제석산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생태교란 외래식물 광주 점령

무등산·제석산·양림산 등 확산 ... 토착식물 생존 위협

### 알레르기성 비염·각종 호흡기질환 유발

토착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거나 고사시키는 외래종 생태계 교란 식물들이 광주 도심까지 파고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등산 저지대의 경우 교란 식물에 의해 사실상 잠식됐으며, 남구 제석산, 양림산 등 도심 야산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생태계 손상이 우려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환삼덩굴 등 10종의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서식 지점과 밀도가 계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생태 교란 식물의 확산 추세는 무등산과 남구 제석산 등지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광주 동구청이 최근 무등산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 교란 식물 분포도 조사 결과, 중심사 일대 약 3천300m에는 '식물계 황소개구리'라 불리는 환삼덩굴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었으며, 지산유원지

인근 1천650m에도 꽃가루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돼지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남구청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50여명이 최근 제석산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행사를 벌인 결과, 900kg에 달하는 돼지풀과 환삼덩굴 등을 수거했다. 뿐만 아니라 양림동 양림산과 노대동 분적산 등지에도 그늘진 곳에서 잘 견디고 번식력이 좋아 토착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서양등골나물과 독성성분인 솔라닌(solanine)이 있는 도깨비가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무등산 낮은 지대에는 교란 식물들이 이미 토착식물을 잠식한 상태여서 재래 식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유해식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형편이어서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조금씩 제거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은 봉사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11일부터 사흘간 무등산 저지대를 중심으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호남대 생물학과 임동욱 교수는 "외래 식물들은 번식력·환경적응능력이 너무 강해 영역 다름에서 재래식물들이 이겨낼 수가 없다"며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생태 교란 식물=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외국에서 들어온 동·식물 중 국내 환경이나 토착 동·식물에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식물은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도깨비가지,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단풍잎돼지풀 등 6종이다.

생태교란식물은 천적이 거의 없어 번식력이 뛰어나고 토종 식물의 서식지를 잠식, 생태계를 파괴한다.

## “혁신도시 차질없다”

최상철 군발위원장,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불가 시사

정부가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5면〉

반면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의 국책사업 채택과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은 조만간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0일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지방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일부 공공기관 민영화에도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며 "참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며, 기업도시도 이같은 기조에서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

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륙과 해안을 축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과 '선벨트(Sun Belt)'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의 정책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5+2 광역경제권"사업의 경우 현재 균형위와 각 부처가 구체적인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며, 선벨트 계획도 지역발전 전략으로 구상되고 있는 단계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에 대해 "영산강 뱃길 복원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또 호남고속철을 당초 계획 기간인 2015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조기 완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소비심리 추락

기대심리 42개월 來 최저

물가 상승에 경기 하강이 심화되면서 경기나 생활 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다시 악화됐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소비자자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대지수는 전월에 비해 5.4포인트 내린 86.8로 집계돼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2004년 12월의 86.5 이후 42개월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3월 99.7, 4월 100.4에서 5월 92.2로 급락한 뒤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6개월 후 경기나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5월 77.9에서 6월 69.9로 8.0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급락을 주도했고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는 5월 95.0에서 6월 89.9로 떨어졌다.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도 한 달 사이 103.8에서 100.7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현안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

## “국회의원들 발 벗고 나서야”

18대 국회가 40여일 넘장 개원하는 동안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하향 조정된 상태로 기획재정부로 넘겨져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18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F1 특별법과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국고 사업 예산 상당 부분을 적게는 5~10%, 많게는 10~15% 정도를 삭감했다. 실제 광양항 건설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

예산이 올해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하향 조정된 채 기획재정부로 넘겨졌다.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사업, 여수 엑스포 국고 지원 사업 등 예산 증액 및 확대가 절실한 핵심 현안들도 기대만큼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SOC 사업 예산도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에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부처 장악력이 현저하게 약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지자체와 정치권의 인이한 자세도 지역 예산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부처와 지자체 간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승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2200-9318